

5월 활동사항

- 5. 2 ~ 4 4환경연합 활동가 워크숍 (가평)
5. 4 '자연의 벗' 광주·소거문도 기행
5. 8 GS 정전사고 현장 답사
5. 9 황매산 사전답사
5. 11 '환경야 놀자!'
5. 21 해양환경위원회
5. 22 회원재정위원회
5. 23 경전선 폐선철로 공동활용 관계자
5. 24 협의회 개최
5. 25 녹색평론 독자모임
5. 26 소호·관기간 도로공사 현장 답사
5. 27 푸름이어린이생태탐사단
5. 28 '환경야 놀자!'
5. 29 '자연의 벗' 합천 황매산
5. 30 전남도교육청 원자력공모전 후원
5. 31 철회 촉구
5. 29 녹색평론 독자모임
5. 30 연대회의 대표자회의
5. 31 해양환경위 신월동 낚시터 조사



6월 활동계획

- 6. 5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 여수시
6. 8 용역 중간보고회
6. 8 정기 집행위원회
6. 8 '환경야 놀자!'
6. 12 녹색평론 독자모임
6. 15 푸름이어린이생태탐사단
6. 16 '자연의 벗' 광양 백운산
6. 22 '환경야 놀자!'

4월 회비 납부해 주신 분들

Table listing names of members who paid their dues in April, organized by amount.

회원소식

황봉광회원님, 주두은회원님, 박국제회원님, 이창록회원님이 박근호 집행위원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진미향회원님, 진순노회원님이 채영숙 집행위원님 추천으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셨습니다.
진미향 회원님은 숲해설가로 활동중이십니다.
고희경회원님, 박점수회원님이 김정진 집행위원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김정민회원님, 최용운회원님, 권일병회원님이 김혜진 집행위원님 추천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김정민 회원님은 현재 태양열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 새로 가입해주신 회원님, 생명을 지키는 천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table for April, showing income and expenses in Korean Won.

• 환경운동연합에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잔액 부족 등으로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시 다음 달에 자동 합산출금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여수환경운동연합) 614-01-035371

물·맑은·동리 2013년 6월 통권 제190호

발행처 : 여수환경운동연합
발행인 : 정희선, 정한수, 진옥
발행일 : 2013년 6월 3일

여수환경운동연합 (555-802)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2층) 전화 (061) 682-0610 팩스 (061) 691-0680 E-mail: yosu@kfem.or.kr 홈페이지: http://yosu.kfem.or.kr

기자회견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일방적 원자력 홍보를 강요하는 '원자력 공모전' 후원을 즉각 철회하라!

원자력 공모전은 위험천만한 원자력을 마치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원자력공모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산업통상자원 부와 한국원자력 문화재단이 전국의 아이들에게 편향적이고 맹목적인 찬양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원자력의 긍정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교육감...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마땅한 교육청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편향적이고 맹목적인 찬양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원자력의 긍정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교육감...

우리의 요구 1. 전라남도교육청은 일방적이며, 편향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공모전 후원과 교육감 상(賞)을 즉각 철회하라! 2. 전라남도교육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라! 3.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원자력공모전 폐지를 정부에 즉각 촉구하라!

우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후원철회와 교육감상(賞) 시상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광주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후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모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자연의 벗' 황매산 기행. Includes photos of a hike, a flower, a stream, and a tree, with captions describing the experience and environmental tips.

친환경 살림법. 페식용유 버리지 마세요~ 빨래비누로 교환해드립니다.^^ Includes tips on reducing plastic use and exchanging deterg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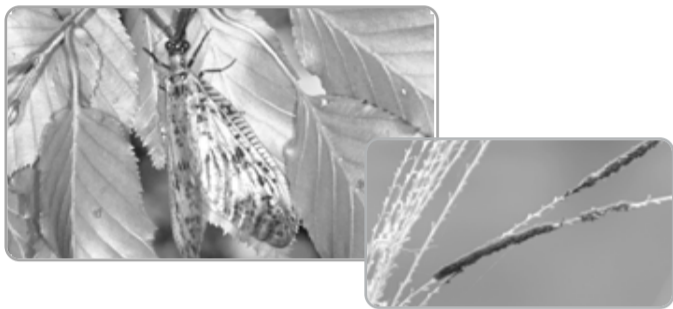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 우리지역 해안공원의 현실이라니~~ ☆

어항단지 해상공원
해양공원 하행등대앞 모습
- 5월 19일 . .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 대륙잠자리의 알



대륙잠자리의 유충과 성충은 본적이 있지만, 알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쩔 저리 정성스럽게 알을 낳았는지~ 어미의 본능일까요? 앞에서 부화한 유충은 물속으로 들어가 몇 년을 유충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화(성충으로 탈바꿈)을 한후 기껏 몇 주 동안 짝짓기 하여 요런 알을 번식한 후 삶을 다한답니다. 이처럼 짧은 성충의 삶,, 기회는 한 번 뿐 일듯요.

제들이 비행기 타고 고향 제주도 내려가던 날!



- 국내 7개 수족관에 28마리의 제들이 친구들이 아직 남아있어.

2013년 5월 9일(목) 새벽 서울동물원에서 남방큰돌고래 '제들이' 이송 작전이 있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포획되어 4년간 돌고래 쇼에 동원되었던 제들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사결정 425일 만에 제주도 고향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들이는 제주도 성산항 가두리에 머물며 방사 준비를 하고, 6월 중순이나 말쭙 제주퍼시픽랜드에서 불법 포획혐의로 몰수된 춘삼이, 삼팔이와 함께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입니다.

시선집중

40일간 공사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에 합의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협의체는 중재안이 발효된 날로써 40일간 운영하며, 밀양 송전탑 건설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2. 전문가협의체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견과 합의 내용이 명시된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 산업위는 이를 바탕으로 반대 대책위에 해결방안을 권고한다. 양 측은 권고에 따르도록 한다.
3. 협의체 기간 동안 한전은 공사를 중단한다.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 입장>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고, 농번기 농사일을 완전히 제쳐둔 채 폭우 속에서 귀가하지 않고 밤샘 농성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협의체 구성에 임하게 되었다.

애초 대책위는 90일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협의체 활동을 원했지만 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나마 40일간 공사가 중단되고, 이 문제에 대해 한전이 꼭꼭 숨겨왔던 원자료들을 공개하고 이를 우리 측 전문가가 검토하고 따져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국회에서 합의문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간에도 밀양 상동면 공사 현장에서는 경찰의 연행 시도를 막아내다 주민 한 분이 탈진해 쓰러지면서 극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 밀양 765kV 반대 대책위원회는 전문가 협의체 활동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밀양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안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한국전력이 수많은 왜곡으로 주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3년 5월 29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끝 난 여수!! 바다와 해양을 살릴 비전을 제시하라!

해양수산부와 여수시는 1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가치인 살아있는 바다·숨쉬는 연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

오는 5월 31일은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해양 분할 경쟁시대에 들어감에 따라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또한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바다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5월 31 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여 다양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간 이명박정부에서 없어졌던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고, 5월 10일 처음으로 바다식목일도 지정하는 등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1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여수시에 요구하고자 한다.

1. 바다의 날은 단순 행사가 아닌 바다의 중요성과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기존 바다의 날 행사는 바다청소하고, 캠페인하고 기념식으로 치러지는 등 단순행사가 주를 이루었기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했고, 세계박람회 1주년이 되어 정책의 변화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라진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 했다는 여수시에서 조차 바다의 잠든 가치를 추구하는 행사

계약도 안했는데, '을'이 된 밀양의 어르신들

- UAE 원전 수출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송전탑 건설 등록일: 2013-05-27 16:08:58, 조회: 192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인해 밀양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전과 경찰의 폭력에 쓰러지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애초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시작된 76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무대책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 지난해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 사망 사태 등 조용한 시골마을을 극한으로 내몰아 왔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공사강행 이유로 '전력위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신고리 3호기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또한 기존 345kV 선로의 용량 증대로 신고리 3호기뿐 아니라 신고리 4호기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다.더구나 한전이 건설하려는 765kV 신고리~북경 남 송전선로는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남 지역의 전력공급이다. 하지만 정작 경남은 지금도 전력생산이 소비보다 2배나 많은 지역이다. 전력이 남아도는 경남을 위해 대용량 원전과 송전탑이 필요하다.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공사를 강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산업부 차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원전을 수출한 UAE에 신고리 3호기의 100% 출력을 보여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완공되지도 않은 새 모델을 수출하려고 무리수를 쓴 탓에 발생한 한전의 문제다.지금 밀양의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동의도 없이 '을'이 되었다. 정부와 한전은 '갑'이 되어 자신의 명명을 일방적으로 따르려고 한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 본 기사는 이투데이(5/14)에 기고되었습니다.

겨울 송전탑
이치우(시인)

침묵의 노인들이
마을 뒷산에 천막을 쳤다.
날그막에 무슨 호감인지
한겨울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잤다.

76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이 서면
집이며 대추밭 밤밭이
속대밭이 되는데
제대로 보상도 없이
한전은 공사를 일방적이다.

여기서 더 살아
무슨 영화를 보겠나.
집이며 논밭이며
혈액이 희박하니
살사할이 없다.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마찬가지.
송전탑 건설 자리
천막을 쳤다.

한전/사장이 온다는 간담회 갔다가
직원들에게 깃발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공사장에도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공사인부에게 맞았어 입원하고
달려나간 난우 길에 허수아비처럼 나뭇굴고
하나 홀로 남겨
경찰에 물러가 피인이 되고
그 사이 기온은
영하로 폭 떨어졌다.

산 위에 바람 소리
무섭다.
산 아래 사람들
더 무섭다.

▲ 고향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분신한 이치우 어르신 빈소에 걸려 있던 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보상금이 아니다. 살던 고향에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는 바람 그 것 뿐이다.

와 어떠한 정책비전 발표 등도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2. 바다의 날 장소는 세계박람회 장소가 치러졌던 여수시 신항이 주된 장소여야 한다. 매년 5월 31 일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장소인 여수시 신항에서 정부가 나서서 세계인들과 약속했던 여수선언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야한다. 또한 살아있는 바다·숨쉬는 연안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부의 해양환경보전의 지를 보여줘야 한다.
3. 세계박람회의 주제를 구현하는 사후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한다. 여수선언에 따른 해양박람회 정신으로 박람회장의 해수유통실시와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중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환경교육의 메카로 발전시켜야한다.
4. 여수시는 민·관 합동으로 박람회 해양환경 발전방향을 담은 T/F 팀구성을 통해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뜨거웠던 2012년 여름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해양의 소중함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미래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수시의 비전이 진정 '해양'에 있다면 보여 주기 식으로 하는 사생대회와 수중정보보다는 국제행사를 치러낸 경험과 내륙과 해양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먼저 바다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3년 5월 30일. 여수환경운동연합

2013년 회원확대캠페인

자연을 안아주세요!
토닥토닥

회원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있기에 4대강 사업 반대, 탈핵, 기후보호운동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맑은 환경,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없으면 환경운동연합도 없습니다. 주변에 딱 한 분만 더 회원가입을 권유해주세요!